

불황 속 광주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호남통계청 '4월 광주·전남산업활동동향'

광공업 생산 0.9%·건설수주 45.4%·소매판매 3.7% ↓
전남 건설수주 68.2% 줄고 판매는 10개월만에 늘어

경제 불황 속 광주·전남 경제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9%, 6.1% 감소했다.

광주 광공업 생산 감소는 지난 1월

(-5.0%) 이후 3개월만, 전남은 지난해 5월(-0.7%) 감소 전환 이후 1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자동차(27.3%)를 비롯, 금속가공(17.8%), 의료정밀광학(12.1%)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장비(-26.0%), 고무·플라스틱(-11.1%), 담배(-10.9%) 등이 감소했다.

특히 연초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9%, 6.1% 감소했다. 광주 광공업 생산 감소는 지난 1월

비 눈에 띄게 축소됐다. 이에 출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재고가 대폭 늘어났다.

지난달 광주 광공업 출하는 자동차(21.2%), 금속가공(23.7%), 담배(29.4%) 등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9% 늘어났다. 전기장비(-32.0%), 고무·플라스틱(-9.3%) 출하는 줄어들었다.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9.3% 증가했다. 자동차(66.9%), 1차금속(115.9%), 기계장비(40.9%) 재고가 늘어난 영향이다.

전남의 경우 4월 광공업 생산이 전기·가스업(22.0%), 1차금속(2.0%), 금속가공(18.8%) 등은 증가, 화학제품(-13.3%), 기타운송장비(-16.7%), 석유정제(-10.8%) 등은 감소했다. 출하

와 재고 모두 주력 생산품인 화학제품, 석유정제 분야의 생산 감소에 각각 1.9%, 6.7% 줄어들었다.

시설투자 지표로 꼽히는 건설수주액도 광주·전남 양 지역 모두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45.4% 줄어든 71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45.3%)과 민간부문(-45.2%) 모두 감소하며 주요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8조9천702억원 중 광주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남의 건설수주액은 1천64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2% 줄어 들었다. 공공부문(-72.5%), 민간부문(-66.8%) 모두 건설수주가 줄었다.

소비 분야에서는 광주는 감소, 전남은 증가하는 등 희비가 갈렸다.

지난달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했다.

고물가 속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따라 가전제품(-25.4%), 신발·가방(-10.6%), 의복(-5.5%) 등의 판매 부진에 백화점 판매가 6.5% 줄어든 반면, 음식료품(7.7%) 등 생활필수품 구매는 늘어 대형마트 판매가 20% 증가했다.

백화점이 없는 전남의 경우도 음식료품(13.7%) 판매 증가에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 늘었다.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 증가는 지난해 6월(0.5%) 이후 10개월 만이다. /양시원 기자

투데이경제



산단공 광주본부 '산업집적법' 설명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31일 본부 중회의실에서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업집적법 설명회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해와 산업단지 입주계약과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신고 절차,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 중 제조업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에 기재된 '첨단업종'이 대표적이다. 비제조업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으로 입주업체가 한정돼 유의가 필요하다.

최근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에서 2022년 12월 첨단리제비스타워, 2023년 4월에는 허드슨 1041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을 완료, 7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에는 총 10개의 지식산업센터, 1천431개의 입주기업이 입주해 있다.

황상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최근 광주첨단산단 내 급증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했다"며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청년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과 한결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연구개발특구 '수출아이템 지원' 모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는 특구 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2023년 광주특구 수출아이템 플랫폼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오는 9월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글로벌 진출에 관심있는 특구기업에 대상으로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문무역상사 매칭, B2B 또는 B2C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수출역량이 부족한 특구기업들에게 수출역량을 보유한 전문무역상사를 매칭,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지역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 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중요하다"며 "특구 내 기술력을 보유한 특구기업의 판로 다양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지역 우수 공예품 만나보세요

디자인진흥원, 오는 2-4일 '팝업스토어' 개최

광주시에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광주 지역의 다양한 공예품과 수제 식음료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판매하는 '우수공예품 팝업스토어'를 6월 2-4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 공예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주민과 공예 분야 소상공인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20-30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 핵심 상품인 광산구 쌍암동 '더 시너지 첨단'에서 진행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공방이 참여, 가죽과, 레진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섬유공예 등 공예상품 이외에도 슈가크래프트, 꽃차 등 식음료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팝업스토어 개최를 통해 지역 우수 공예품을 보유한 공방들의 우수성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지역민과의 만남을 통해 매출 증대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신세계는 31일 광주신세계 대표이사실에서 '28기 지역인재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이홍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홍보대사, 김영천 광주신세계 관리이사, 김성훈 광주신세계 사원대표. <광주신세계 제공>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12개 은행 취급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들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운영에 들어가며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이 취급하게 된다.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 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지역인재 희망장학금 전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6천400만원 기탁

광주신세계는 31일 광주신세계 대표이사실에서 2023년 '28기 지역인재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진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6천4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신세계는 1995년 개점 초기부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관공서 및 장학재단 등과 연계해 소년, 소녀 가정 및 차상위층 계층 자녀, 사회봉사 활동 우수자 등 광주지역 중·고등학

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28년간 지속된 광주신세계 장학 사업은 어려운 기업 영업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지역 인재 3천100명에게 총 32억여원을 지원했다. 올해 또한 130여명의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연간 총 1억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천 광주신세계 관리이사는 "광주신세계가 개점 초기부터 추구하는 사회공헌활동의 궁극적인 목적

은 나눔경영의 적극적 실천을 통한 지역민 모두의 행복한 삶에 있다"며 "어려운 환경 속의 지역 청소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와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시원 기자

<h2>상무지구 상가 (매매)</h2>	<h2>장성토지 매매</h2>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h2>
<p>▶ 중심 상업지구</p> <p>(6층,7층) = 140평</p> <p>시세 → 14억</p> <p>급매 6억8천</p> <p>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p>▶ 장성호(댐) - 5분</p> <p>광주 - 20분</p> <p>토목공사 완료</p> <p>6m 도로접</p> <p>(100평,150평,200평 가능)</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p> <p>광산구 연신동 (근린시설) ▶ 감평가 29억 → 최저가 20억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 ▶ 감평가 50억 → 최저가 28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평가 31억 → 최저가 22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10억 → 최저가 7억5천 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 → 최저가 2억2천 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1억2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19억</p>
<p>010-6670-9800</p>		

